

“기억의 울림, 음악으로 되살아나다”

전주 문화공간이름, 23일 비르투오조 시리즈 세 번째 무대 트리오 오보 ‘상실의 시대’ 개최

23일, 전주 문화공간이름(이사장 이운정)에서 2025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인 트리오 오보 ‘상실의 시대’가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상실’과 ‘회복’, 그리고 ‘인간 존엄’을 음악으로 깊이 있게 조명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날 무대에는 국내외 클래식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거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체코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휘, 첼로의 표현 영역을 확장해 온 첼리스트 이호찬, 섬세한 해석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김경민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완벽한 호흡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공연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공연은 세 곡의 피아노 트리오로 구성되어 하나의 서사로 엮였다. 첫 곡인 라흐마니노프의 ‘Trio elegiac No.1’은 젊은 작곡가의 내면적 슬픔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지는 쇼스타코비치의 ‘Piano Trio No.2’는 전쟁의 비극과 집단적 고통을 강렬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유대인



트리오 오보 ‘상실의 시대’ 포스터

민속 선율과 장송 행진곡이 교차하는 이 작품은 개인의 상실이 어떻게 집단의 아픔으로 확장되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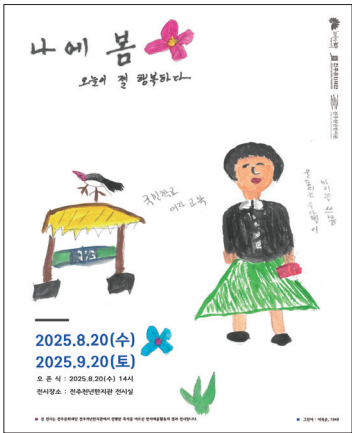
2부에서는 스메타나의 ‘Piano Trio in G minor, Op.15’가 연주된다.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을 담아낸 이 곡은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연주와 만나 관객들의 뜨거운 공감을 자아낸다. 상실의 감정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회복의 과정이 음악으로 생생하게 펼쳐지자, 공연장은 숙연한 감동으로 가득 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음악이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언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공간 이름 이운정 이사장은 “예술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며, 공동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언어”라며 “이번 공연이 지역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정적 연대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전주 시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흔히 않은 수준 높은 실내악 무대이자,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예술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만호 기자

한지골 어르신 인생 이야기 예술에 담다

전주천년한지관, ‘할매랑 할배랑 옛날이야기’ 한지 예술활동 프로젝트 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20일부터 한달 간 전주천년한지관에서 흑석골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을 한지 예술로 담아낸 전시 ‘나에 봄, 오늘이 켈 행복하다’를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과거 ‘한지골’로 불릴 만큼 전통한지 산업이 활발했던 전주시 완산구 서학동 일대 흑석골을 배경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으로 기록한 인생 이야기를 소개한다. 작품들은 원주민과 이주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한 ‘할매랑 할배랑 옛날이야기’ 한지 예술활동 프로젝트 결과물로 △집과 가족 이야기 △그 시절의 생계 이야기 △나의 봄 이야기 △흑석골의 자랑 △함들었던 시절 △옛 흑석골의 풍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전시 제목 ‘나에 봄, 오늘이 켈 행복하다’는 참여 어르신 안공희 님의 글에서 가져온 것으로, 어르신들이 느낀 현재의 행복과 예술활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할매랑 할배랑 옛날이야기’는 흑석골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지역 예술가 중심이 돼 10주 동안 시범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 수원시립미술관, 교류 · 협력 특별기획전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8일 서울본관에서 수원시립미술관(관장 남기민)과 공동으로 교류 · 협력 특별기획전 ‘B와 초콜릿의 개릴라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시 제목은 올해 두 미술관에서 개최된 특별전의 주요 키워드를 따라 구성

됐다. 도립미술관의 ‘진격하는 B급들’에서 따온 ‘B’는 탈중심, 즉 의도적으로 경계 밖을 지향하는 예술 실천을 주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콜릿’은 수원시립미술관의 ‘모두에게: 초콜릿, 레모네이드 그리고 파티’에서 파생된 것으로 귀족적 사치품에서 대중적 즐거움으로 변화한 역사적 전환을 은유하며, ‘개릴라 파티’는 제도 밖에서 벌어지는 창조적 해방감과 예기치 못한 만남을 표현한다. 여기에는 미술관을 경직된 공간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소통의 장으로 확장하려는 기획 의도가 담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완호부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화제를 모은 클레어 풍텐까지 총 6팀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 17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석암문화대상 · 가사가곡 시조창 경창대회 23~24일 부안서 개최

(사)부풍유희회(회장 윤형산)가 주관하는 제19회 석암문화대상 및 제27회 가사가곡 시조창 경창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시조창의 명인 석암 정경태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정악의 보존과 대중화를 위하여 열리는 전국 정가 경연대회로 매년 100여명의 참가자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연은 23일 가사가곡(신인부, 명가부) 부문, 24일 석암문화(명창부, 대상부) 부문으로 진행, 가사가곡 명가부 장원(도지사상)과 석암문화 대상부 장원(부풍유희회장상)을 비롯한 각 부문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 JB문화공간, 광복 80주년 기념 시극 ‘그날이 오면’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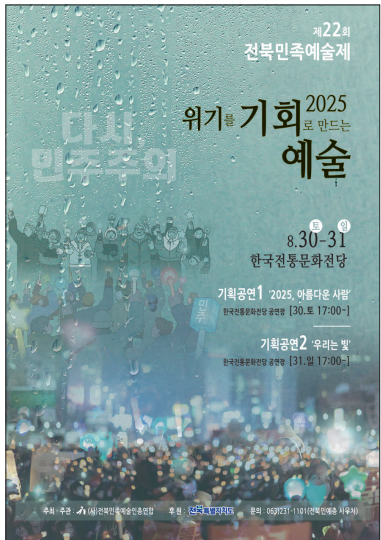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군산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시극 ‘그날이 오면’을 성료했다. 이번 공연은 전주와 군산 JB문화공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JB예술아카데미 사업 선정작으로, 군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시극단 ‘시동’이 무대를 맡았다. 김영철 작·연출의 ‘그날이 오면’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병을 거쳐 나라를 잃은 민족의 절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시와 퍼포먼스로 풀어낸 작품이다. 공연은 독립운동가와 문인들의 사냥송, 하제마을 팽나무 시 퍼포먼스, 창작시극 ‘나는 고독하지 않다’ 등 3부로 구성된 역사적 아픔과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했다. 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단순한 예술 감상을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대로 채워졌다. /오성근 기자



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단순한 예술 감상을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대로 채워졌다. /오성근 기자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30~31일 개최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전북민예총)은 오는 30~31일 양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22회 전북민족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예술’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131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주 운동의 역사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조명한다. 또한 2024년 겨울 계엄 정국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2030 여성 세대와 민주 시민의 연대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먼저 30일에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5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민중 가수인 고(故) 김민기의 추모 1주기를 맞아 녹두꽃 시민합창단과 전주소년소녀합창단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합창 무대를 선보이고, 국악그룹 센터맨탈로그와 재즈밴드 바람처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공연을 펼친다. 31일에는 ‘우리는 빛’이라는 제목의 기획 공연이 이어진다. 민요씨스타즈 춘삼월은 전통 민요를 현대적 리듬으로 재해석해 흥을 불러일으키고, 민속악단체 울마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을 전한다. 또한 무용단 퍼포밍 폼은 몸짓으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표현하며, 음악의 물의 MR작업을 통해 실험적인 사운드가 무대를 채운다. 한편 전북민예총은 1970~80년대 반독재 민



주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 과정에서 ‘예술로 사회를 변화한다’는 정신으로 탄생했다. 현재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공연, 풍물, 영상, 사진, 서예, 문화기획, 민족통일 등 13개 분야 예술인들이 모여 활동중이며, 민주주의 확립과 지역 정체성 강화,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